

요한계시록에서의 소돔 모티브 사용

김 경 식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요한계시록에는 다양한 구약본문들과 구약으로부터 온 이미지가 사용된다. 따라서 구약본문과 구약이미지들 그리고 계시록 본문과의 상호연관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계시록의 상징과 이미지들은 여러 구약 선지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는 계시록의 뼈대를 이루는 구약본문들이다. 또한 구약에서 중요한 출애굽 모티브는 계시록의 세 재앙 시리즈(6-16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어 출애굽 모티브와 이 세 재앙 시리즈의 상관관계를 도외시하면 계시록은 무분별한 해석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논문은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돔 모티브를 분석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¹⁾ 외관상 계시록에서 소돔이 직접 언급되는 본문은 계시록 11:8 밖에는 없다. 소돔이라는 지명이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본문이 이렇듯 희소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소돔 모티브가 중요하게 사용되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1) M. H. Abrams의 문학용어사전에 의하면 ‘모티브’(motif)는 소설, 시 같은 하나의 문학 단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어구, 일정한 묘사, 일련의 이미지들(the frequent repetition of a significant phrase, or set description, or complex of images, in a single work)을 가리킨다. M. 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5th ed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88), 110.

수도 있다. 단지 1회 사용된 소돔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계시록에 사용된 소돔 모티브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사뭇 사막에서 신기루를 실재인 것처럼 허황되게 보일 수도 있는 작업이다. 이렇듯 소돔이라는 지명이 단 한 번 사용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계시록에 소돔과 관련된 내용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계시록관련 논문들이나 주석들은 체계적으로 소돔 모티브를 다루고 있지 않다. 소돔과 관련해 계시록 본문을 해석하려는 작업은 주로 앞서 언급한 계시록 11:8에만 국한된 것이 전부이다.

본 논문은 소돔 모티브와 관련해 미진된 계시록 연구의 경계선을 한 발자국 더 확장해 보려는 시도이다. 필자는 소돔 모티브를 분석하면서 단지 명시적으로 소돔이 언급된 계시록 11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암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돔 모티브의 간접적 사용(allusion)을 분석하여 소돔 모티브가 계시록의 중요한 문맥들에서 채용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소돔 모티브가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는 의도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1. 소돔 모티브에 관한 기존 연구

우선 소돔 모티브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돔 모티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시도는 거의 없었음을 보여주고, 더 나가서 계시록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소돔 모티브의 분석을 통해 이 모티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찾아내는 일이 필요함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관한 해석과 후대 문헌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루는 책들과 소논문은 방대하다.²⁾ 방대한 자

2) 창세기 18-19에 기록된 소돔 이야기와 후대의 해석에 관한 방대한 문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참고문헌이 다음 단행본에 편리하게 정리되어 있다. Ed Noort and Eibert Tigchelaar, *Sodom's Sin: Genesis 18-19 and its Interpretations* (Leiden/Boston: Brill, 2004), 189-193.

료를 가운데 여기서는 우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문헌들에 국한해 논의를 집중하려고 한다. 따라서 소돔과 계시록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 혹은 구약이후 후대문헌에 사용되고 있는 소돔 모티브를 다룬 문헌들 중심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소돔 모티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로우더(J. A. Loader)를 들 수 있다.³⁾ 그의 책 제목(*A Tale of Two Cities: Sodom and Gomorrah in the Old Testament, early Jewish and early Christian Traditions*)이 암시하듯 로우더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구약성경, 초기 유대교 문헌, 필로와 요세푸스 그리고 랍비문헌, 마지막으로 신약성경과 교부문헌들에 사용되는 본문들을 분석하는 방대한 작업을 한다. 로우더의 연구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해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다양한 저자들과 여러 문헌들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데 의의가 크다. 그의 연구의 결론은 두 가지이다.⁴⁾ 첫째 창세기 18-19장이 하나의 문학 단위라고 주장한다. 둘째로 창세기 18-19장의 이야기(narrative)가 풍부한 전승들에 영감을 주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전승에 관한 방대하고 체계적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사용되는 소돔 모티브 혹은 전승에 관한 그의 논의는 겨우 한 단락(paragraph) 정도에 불과하다. 그는 계시록 11:8에서 소돔이라는 지명의 기능을 경멸조의 이름(derogatory name)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의미로 소돔이라는 지명이 사용되는 이유를 소돔이 모든 도시에 가운데 가장 사악한 도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⁵⁾ 또한 그는 계시록에서 사용되는 불과 유황의 이미지가 창세기 19:24에 기록된 심판의 모티브에서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간다.⁶⁾ 불과 유황의 이미지가 소돔 심판의 모티브에서 왔을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3) J. A. Loader, *A Tale of Two Cities: Sodom and Gomorrah in the Old Testament, early Jewish and early Christian Traditions* (Contribution to Biblical Exegesis and Theology 1; Kampen: J. H. Kok Publishing House, 1990)

4) Loader, *A Tale of Two Cities*, 139-140.

5) Loader, *A Tale of Two Cities*, 126.

6) Loader, *A Tale of Two Cities*, 126.

그의 논문은 이 모든 내용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고 넘어간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모티브(motif)라는 관점으로 연구한 학자는 역시 필즈(Weston W. Fields)일 것이다.⁷⁾ 그는 모티브의 뜻이 무엇인가에서 부터 시작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narrative)가 가지고 있는 주요 핵심 모티브(the motif)와 부수 모티브(submotifs)를 나누어 분석하는 치밀한 연구를 진행한다. 그는 모티브의 정의를 다루면서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나 사건 혹은 상황이라고 규정하는 일반적인 정의에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탈몬(Talmon)의 개념을 수용해 모티브를 추상적인 생각에 관한 요약적 지시체('condensed signifiers of speculative thought')라고 본다.⁸⁾ 다시 말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혹은 편집자들의 생각과 사고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condensations of the biblical authors' and editors' ideas and thoughts)이라고 정의한다.⁹⁾ 그는 소돔 이야기에서 '한 사회의 나그네(외부인)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가 중요한 모티브라고 주장하고, 부수적 모티브로 낯선 사람에 대한 성적 학대, 불로 멸망당함 등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연구는 구약성경에서 소돔 모티브가 사용되거나 확대 재사용되고 있는 본문들을 다루는 치밀함을 보인다. 모티브라는 관점에서 소돔 모티브를 누구보다 종합적으로 다룬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서의 소돔 모티브 사용은 그의 연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논의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의 연구의 초점이 주로 구약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티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에서의 소돔 모티브를 그래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피어볼트(Bert Jan Lietaert Peerbolte)이다.¹⁰⁾ 그의 소논문이 수록된

7) Weston W. Fields, *Sodom and Gomorrah: History and Motif in Biblical Narrative* (JSOTSup 23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8) Fields, *Sodom and Gomorrah*, 16.

9) Fields, *Sodom and Gomorrah*, 19.

10) Bert Jan Lietaert Peerbolte, "Sodom, Egypt, and the Two Witnesses of Revelation 11:8" in Ed Noort & Eibert Tigchelaar (ed.), *Sodom's Sin: Genesis 18-19 and its*

단행본(*Sodom's Sin: Genesis 18-19 and its Interpreters*)은 창세기 18-19장에 기록된 소돔 이야기가 후대 문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져 사용되었지를 다루는 소논문을 수록해 놓았고, 그 중에서 피어볼트의 논문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필자의 논문과 많은 부분에서 관심사가 비슷하다. 하지만, 피어볼트의 연구는 계시록 11:8에 등장하는 소돔이라는 상징적 지명이 왜 예루살렘을 가리켜 사용되었는지를 밝히는데 주 목적이 있다. 피어볼트는 소돔과 애굽이라는 지명은 바벨론(로마제국)이 아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지명이며, 이 두 지명은 예루살렘이 불경건하고, 억압적인 성격을 지닌 도시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결론 내린다.¹¹⁾ 피어볼트의 논문은 전형적으로 소돔이라는 지명이 명확하게 나오는 계시록 11장에서만 국한해 소돔 모티브를 연구하는 제한성을 보여준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계시록 11장뿐만 아니라 계시록 전반에 걸쳐 암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돔 모티브를 대상으로 계시록에서의 소돔 모티브의 기능을 분석해 피어볼트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

요한계시록에서의 구약사용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관찰한 사람은 비일(G. K. Beale)이다. 그는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소돔 모티브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치밀하게 관찰해 냈다. 그는 불과 유향과 연기의 이미지가 소돔 모티브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²⁾ 또한 계시록 18:4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는 권면이 소돔 멸망 이야기에 나오는 권면(창 19:14)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³⁾ 비일의 설명은 필자의 연구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논증에서 보여 주겠지만 비일과 필자의 차이점은 소돔 모티브가 계시록에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그친 비일의 설명과는 달리, 그가 보지 못한 더 광범위하고 정교한 소돔 모티브의 암시를 분석하고 또 계시록에서 이 모티브가 지닌 기능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nterpreters (Themes in Biblical Narrative 7; Leiden/Boston: Brill, 2004).

11) Peerbolte, “Sodom, Egypt, and the Two Witnesses of Revelation 11:8,” 82.

12)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511.

13)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899.

2. 불과 유황의 이미지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이나 재앙을 묘사하면서 불과 연기와 유황의 이미지를 사용되는 대목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의 이미지는 분명 소돔 모티브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표현들이다. 아래에서 이를 좀 더 밝혀 보겠다.

가. 여섯째 나팔 재앙과 소돔 모티브

계시록 9:17-18에 불, 연기 그리고 유황의 이미지가 제일 먼저 등장한다. 이 세 가지 이미지가 사용되는 문맥은 여섯 번째 나팔재앙(9:13)이 묘사되는 상황이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놓임을 받게 되고 네 천사의 놓임과 동시에 이만 만의 마병대가 등장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장면에 불과 연기와 유황의 이미지가 사용된다. 마병대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마병대가 탄 말과 그 위에 탄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입고 있다. 불빛과 자줏빛 그리고 유황빛의 호심경(breastplates)을 입은 주체가 말을 탄 마병대에만 국한되는가 아니면 이들이 탄 말까지 해당하는가에 논란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이 마병대가 입고 있는 갑옷의 색깔을 불빛, 자줏빛 그리고 유황빛으로 묘사하는 장면이다.¹⁴⁾ 오스본(Grant R. Osborne)이 설명하듯이 이 세 가지 빛은 각각 불과 연기와 유황과 관련이 있다. 마병대가 타고 있는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마병대가 입은 호심경의 색깔은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과 관련이 있다.¹⁵⁾ 다시 말해 호심경의 색깔 가운데 불빛은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관련이 있고, 말의 입에서 나오는 연기는 호심경 가운데 자줏빛

14) 예를 들면, Grant Osborne은 마병대뿐만 아니라 말도 세 종류의 빛과 관련된 갑옷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Grant R. Osborne, *Revelation* (BECNT; Grand Rapids: Baker, 2002), 382.

15) Osborne, *Revelation*, 382.

과 관련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의 입에서 나오는 유황은 호심경 가운데 유황빛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흥미롭게도 17-18절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어구가 모두 세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17절에 두 번에 걸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첫 번째는 마병대가 입은 호심경의 색깔이 불과 연기와 유황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로 이 어구가 등장하는 대목은 17절에서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묘사하는 상황에서이다. 세 번째로 18절에서 다시 한 번 세 재앙을 설명하면서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이 어구가 사용되고 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어구와 이와 관련된 어구가 세 번씩이나 여섯째 나팔재앙의 문맥에서 사용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 의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소돔 모티브이다. 이 본문을 다루는 학자들은 여섯째 나팔 재앙에 사용된 소돔 모티브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¹⁶⁾ 우선 이 단락에서 소돔 모티브가 과연 사용되고 있는 지부터 밝혀보자. 소돔 모티브가 계시록 9:17-18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 아닌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어구이다.

우선,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구약과 신약성경을 통틀어 유황(θεῖο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창세기 19:24, 신명기 29:22, 시편 10:6, 욥기 18:5, 이사야 30:33, 34:9 에스겔 38:22, 누가복음 17:29이다. 유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שָׁרָפָה**도 위의 구약 본문에만 사용된다(창 19:24, 신 29:22, 욥 18:15, 시 11:6, 사 30:33, 34:9, 겔 38:22).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유황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게다가 유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사용되는 장면은 다음 아닌 소돔의 멸망을 묘사하는 장면에서이다(창 19:24). ‘유황’ (θεῖον/שָׁרָפָה)

16) Robert H. Mounce는 18절의 장면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불과 유황을 연상시킨다고 아주 간략하게 지나가면서 언급하기만 한다. Robert H. Mounce, *The Book of Revelatio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7), 203. 마찬가지로 Grant Osborne도 이 단락을 주석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지명을 언급하지만, 소돔 모티브와 관련지어 이 단락을 해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Grant Osborne, *Revelation*, 383).

이라는 신약과 구약성경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 자체가 이 단어가 사용되는 자리에서 소돔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헤이라는 단어 하나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과 유헤’이라는 단어의 결합은 구약성경에서 최초로 창세기 19장의 소돔 멸망의 장면에서 사용되는 어구이다(창 19:24).¹⁷⁾ 불과 유헤이라는 어구가 소돔을 연상시킨다는 것은 신명기 29:23에서도 뒷받침이 된다. 이 신명기 구절은 불, 유헤, 연기라는 단어들이 소돔이라는 지명과 함께 결합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문맥으로 창세기 18-19장의 소돔 심판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 계시록 9:17-18에도 불과 유헤이라는 어구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 이 대목에서 소돔 모티브가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계시록 9:17-18에서 소돔 모티브가 채용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불과 유헤이라는 어구뿐만 아니라, 연기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계시록 19:17-18에서는 세 번에 걸쳐 불과 연기와 유헤이라는 어구가 반복된다. 그런데 불과 연기와 유헤이라는 어구는 흥미롭게도 창세기 19장에 묘사된 소돔의 멸망 장면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창 19:24, 28).¹⁸⁾

- 창 19:24 καὶ κύριος ἔβρεξεν ἐπὶ Σοδομα καὶ Γομορρα θεῖου καὶ πῦρ παρὰ κυρίου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 창 19:28 καὶ ἐπέβλεψεν ἐπὶ πρόσωπον Σοδομων καὶ Γομορρας καὶ ἐπὶ πρόσωπον τῆς γῆς τῆς περιχώρου καὶ εἶδεν καὶ ἰδοὺ

17) 구약성경(HB)에서 불과 유헤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어구가 사용되는 대목은 모두 여섯 구절로 창 19:24, 신 29:23, 시 11:6, 사 30:33, 사 34:9 그리고 겔 38:22이다.

18) G. K. Beale은 불과 연기와 유헤이라는 구절이 창세기 19:24,28에만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의 이 구절의 가장 눈에 띄는 구약배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라고 본다(G.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511). David E. Aune는 필로(Philo)의 글(Mos. 2.55-58)에서 불과 유헤와 연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묘사하는 대목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David E. Aune, *Revelation 6-16*, WBC 52b; Nashville: Thomas Nelson, 540-541).

ἀνέβαινεν φλὸς τῆς γῆς ὥσεί *ἀτμὶς* καμίνου

- 계 9:17-18 ¹⁷Καὶ οὕτως εἶδον τοὺς ἵππους ἐν τῇ ὁράσει καὶ τοὺς καθημένους ἐπ' αὐτῶν, ἔχοντας θώρακας πυρίνους καὶ ὑακινθίνους καὶ θειώδεις, καὶ αἱ κεφαλὰὶ τῶν ἵππων ὡς κεφαλὰὶ λεόντων, καὶ ἐκ τῶν στομάτων αὐτῶν ἐκπορεύεται πῦρ καὶ καπνὸς καὶ θεῖον.¹⁸ ἀπὸ τῶν τριῶν πληγῶν τούτων ἀπεκτάνθησαν τὸ τρίτον τῶν ἀνθρώπων, ἐκ τοῦ πυρὸς καὶ τοῦ καπνοῦ καὶ τοῦ θεῖου τοῦ ἐκπορευομένου ἐκ τῶν στομάτων αὐτῶν.

창세기 19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소돔과 그 주위의 도시들 위에 ‘유황과 불’ (θεῖον καὶ πῦρ)을 비처럼 내려서 소돔을 포함한 도시들을 멸망시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도시들에서 연기(불꽃 φλὸς)가 ‘웅기 가마의 연기같이’ (ὥσεί ἀτμὶς καμίνου) 치솟음을 보았다. 창세기 19:28의 헬라어 본문은 ‘땅의 불꽃’ (φλὸς τῆς γῆς)이라고 표현한 대목에서 같은 구절의 히브리어 본문(HB/MT)은 ‘땅의 연기(עָשָׁן)가 웅기 가마의 연기같이 올라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소돔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면서 사용되는 불과 유황이라는 단어들이 정확히 일치하게 등장하고, 비록 헬라어상으로는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개념상 유사한 단어인 연기(עָשָׁן φλὸς / ἀτμὶς καπνὸς)라는 명사가 창세기 19장과 계시록 9장에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계시록 19:17-18이 소돔 모티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뒷받침해 주는 근거들이다.

지금까지의 논증은 계시록 9:17-18에 소돔 모티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여섯째 나팔재앙이 묘사되는 대목에서 다른 모티브도 아닌 소돔 모티브가 사용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섯째 나팔재앙의 목적과 결과를 다루고 있는 문맥에서 찾을 수 있다. 계시록 9:18에 의하면 ‘불과 연기와 유황’은 세 개의 재앙(τῶν τριῶν πληγῶν)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 재앙의 목적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20절은 밝힌다. 실제로 세 재앙이라고 불리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라는 여섯째 나팔 재앙은 이 전에 소개된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황충 재앙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정도였고, 목숨을 빼앗는 재앙은 아니었다(계 9:5-6). 하지만, 여섯째 재앙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재앙이다(계 9:15,18). 사람을 죽이는 이 재앙의 범위는 사람 삼분의 일이다.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분의 사람만이 죽임을 당한다는 점은 이 재앙이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죽음을 모면한 사람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상숭배를 지속하고(20절)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아간다(21절). 소돔모티브가 사용된 9:17-18과 20-21의 연관은 단지 ‘재앙’ (18, 20)에서뿐 아니라 ‘음행’ 라는 단어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다시 말해 소돔 모티브가 계시록 9:17-18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계시록 9:21에도 암시되어 있다. 그 이유는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음행’ 이 나온다는 점 때문이다. 회개를 촉구하는 세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 귀신들과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 죄악의 목록 가운데서 소돔 모티브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음행(*πορνεία*)이다. 소돔의 거주민들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 하나가 성적 타락이라는 점은 창세기 19:5-8에 암시되어 있다.¹⁹⁾ 계시록을 제외하고서라도 베드로후서 2:6이나 유다서 7절에도 소돔의 죄악을 성적 타락과 연관 짓고 있음을 볼 때, 소돔의 죄악을 성적 타락과 연관 짓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여섯째 나팔 재앙 가운데 소돔모티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불과 연기와 유향의 재앙은 다른 의도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 (20, 21)를 촉구하기 위해 소돔 이야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계시록 9:17-18에서 불과 유향과 연기라는 어구는 구약의 소돔 이야기(창 18-19)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이 소돔 모티브는 악의 대리자들(마법대와 말들)이 행하는 재앙들이 한편으로는 (1)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에

19) 소돔과 음행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Fields, *Sodom and Gomorrah: History and Motif in Biblical Narrative*, 116-133에 논증되어 있다.

계는 소돔의 멸망과 같은 심판을 가져옴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2) 사람의 2/3에 해당하는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역할을 해, 이들이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할 경우 최종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 창세기 18-19장의 이야기 즉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롯의 사위들이 롯의 경고를 듣고도 그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며 소돔을 떠나길 거부했고 이 행동의 결과로 소돔과 함께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 영벌의 이미지와 소돔 모티브

계시록에서 불과 유향의 이미지가 사용되는 또 다른 대목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과 관련된 문맥에서이다. 계시록에 불과 유향이 영벌의 개념과 같이 사용되는 대목은 14:10, 19:20, 20:10 그리고 21:8이다. 그리고 영벌을 묘사하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불과 유향의 이미지도 소돔 모티브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불과 유향이라는 단어의 결합은 구약과 신약성경에 흔하지 않은 어구이며, 불과 유향이라는 어구가 최초로 등장하는 문맥이 소돔의 멸망을 다루는 창세기 19장이기 때문에, 불과 유향이라는 어구만으로도 소돔과 관련된 이야기가 연상된다고 논증했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는 영벌과 관련된 문맥에 사용된 불과 유향이 소돔 모티브와 관련되어 있음을 반복해 논증하지 않고 대신 영벌과 관련된 문맥에서의 소돔 모티브의 기능을 분석하는데 우리의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계시록 14:10-11에 ‘불과 유향’이라는 어구(10절)와 ‘연기’(11절)라는 단어와 관련해 소돔 모티브가 등장하는데, 세 천사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짐승과 그 우상을 따르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경고하는 문맥에서이다. 계시록 14:9-12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9-11절은 경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바다짐승을 따르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로 권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권

면은 성도들에게 핍박과 미혹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고 요구한다. 이 두 단락 가운데 소돔 모티브가 사용되는 곳은 첫번째 단락인 경고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9-11절이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소돔의 멸망을 묘사하는데 사용한 단어인 불과 유황 그리고 연기를 사용해 짐승을 따르며 그의 표를 받는 사람들의 받을 심판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소돔의 멸망을 연상시키는 생생한 불, 유황 그리고 연기의 이미지는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경고의 내용이 단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불신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은 9-11절이 조건문(εἰ)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누구든지’ (τις)라는 불특정인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점에 의해 뒷받침된다. 즉 불신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자들까지도 만일 누구든지 짐승을 따르고 그의 표를 받는다면 그도 불과 유황과 연기로 묘사된 소돔의 멸망과 같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결국 소돔 모티브가 사용되어 묘사된 영원한 심판의 묘사도 불신자들의 운명을 단순히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올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2절의 권면뿐만 아니라, 9-11절의 경고도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성도에게 인내하라고 촉구하는 12절의 권면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권면이라면 9-11절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묘사도 단순히 불신자들의 운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 주는 부정적인 표현으로서의 권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은 결국 불신자들이 당하는 운명과 똑같은 운명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운명은 다른 아님 소돔의 운명과 같다는 부정적인 형식으로 표현된 강력한 회개 촉구의 권면이다.

이제 불과 유황이라는 어구가 결합되어 나오는 나머지 구절들을 살펴볼 차례이다. 흥미롭게도 이 어구가 사용되는 계시록 19:20, 20:10 그리고 21:8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설명하는 최후심판에 대한 묘사와 관련이 있다.²⁰⁾ 계시록 19:20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못(τὴν λίμνην τοῦ πυρὸς τῆς καιομένης ἐν θεῷ)에 던져지는 장면이고,

계시록 20:10은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된 못(τὴν λίμνην τοῦ πυρὸς καὶ θείου)에 던져지게 되어 영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다. 심판의 장소를 연못으로 묘사하고 이 연못을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못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장소가 계시록에 등장하는 사탄적인 삼위일체인 사탄과 바다짐승과 거짓 선지자(땅 짐승)가 최후 심판의 결과로 던져지는 곳이다. 앞에서 이미 논증해 보였듯이 불과 유황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의 소돔 모티브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직면하게 되는 최후심판 즉 영벌의 상태를 소돔의 멸망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들을 가져다 사용해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의 삼위일체(Satanic trinity)에 임하는 심판은 소돔에게 임했던 불과 유황과 연기의 심판과 같은 심판이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 소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과 유황과 연기 이미지로 묘사된 소돔 모티브가 사용되는 문맥은 모두가 다 경고 혹은 권면의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근접 문맥에 등장했다. 계시록 9장의 경우, 소돔 모티브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경우는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말고, 그의 표를 받지도 말라는 경고의 내용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계시록 19:20과 20:10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나 경고가 아니라, 사탄적 삼위일체에게 임하는 심판에 관한 설명과 묘사에 해당한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권면이나 경고를 통해 이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돔 모티브가 권면이나 경고의 기능이 아니라 단순히 심판에 대한 설명과 묘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면 소돔 모티브와 관련된 어구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설명하는 마지막 내용인 계시록 21:8은 사탄의 삼위일체와 관련해 사용된 소돔 모티브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계시록 21:8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도입부이다. 8절은 7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7절은 이기는 자

20) Loader, *A Tale of Two Cities*, 126. Loader는 계시록에서의 불과 유황에 대한 언급은 창 19:24에 기록된 소돔 멸망의 장면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간략히 제시하기만 하고 논증하지는 않는다.

들에게 주어지는 상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8절은 악인들의 목록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악인들로 제시된 사람들은 모두 8개의 부류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 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τῇ λίμνῃ τῇ καιομένῃ πυρὶ καὶ θείῳ)에 던져져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 이들은 앞서 나온 사탄의 삼위일체 즉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나오는 여덟 부류의 악인의 목록은 흥미롭게도 소돔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인 계시록 9:17-21에 나오는 악인들의 악행과 매우 유사하다. 계시록 9:20-21에는 악인의 행위로 우상숭배(20절),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21절)로 5가지가 제시되는데 이 중 네 가지 즉 우상숭배, 살인, 복술(주술), 음행의 행위가 계 21:8에 제시된 악인들의 행위와 같다. 물론 계시록 9장과 계 21장에서 사용된 불과 유황으로 제시된 소돔 모티브에는 차이가 있다. 계시록 9장의 경우 불과 유황은 최후심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최후심판 이전에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었다. 하지만, 계시록 21:8에 사용된 불과 유황의 못과 관련해 등장하는 소돔 모티브는 최후 심판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계시록 9장에서 마병대의 말이 내 뿜는 ‘불과 유황과 연기’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에 가서 피할 수 없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8부류의 악인들 가운데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의 네 부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와 동의어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계시록 9:20-21에 똑같은 4부류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ἄνθρωπος)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여기 20절에서 사용된 사람(ἄνθρωπος)이라는 단어는 근접문맥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계 9:4).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네 그룹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악인의 목록 가운데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시록 21:8에 제시

된 악인의 목록 가운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점이다.²¹⁾ 여덟 부류의 악인 목록 가운데 의미심장하게도 맨 처음과 맨 나중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다. 맨 처음에 나오는 악인은 ‘두려워하는 자들’(δειλοῖς)이고 목록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악인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πᾶσιν τοῖς ψευδέσιν)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박해와 살해의 위협을 두려워해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이다.²²⁾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신앙을 숨기며 거짓말하는 자이다.²³⁾ 결국 소돔 모티브는 신앙을 타협하는 교회 내부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불과 유향의 못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는 소돔 모티브는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땅에 거하는 자들”)의 운명을 설명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교회내부에 있는 자들에게 소돔의 멸망과 같은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7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ὁ νικῶν)에게 주어지는 상이 격려의 기능을 한다면 8절의 악인의 목록과 소돔 모티브는 신앙을 타협하는 교회내부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을 계속 타협할 경우 이들이 당하게 될 운명이 불과 유향으로 멸망당한 소돔사람들의 운명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경고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요약하면, 계시록에서 영벌과 관련된 소돔 모티브는 짐승, 거짓선지자, 사탄과 관련해서는 영원한 형벌을 묘사하는 기능을 한다. 이들은 회개의 대상도 아니며 권면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이들을 추종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교회 내부에 있으면서도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자들에게 적용된 소돔 모티브는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21) 참고, Mounce, *Revelation*, 375. Osborne, *Revelation*, 741.

22) 참고, Osborne, *Revelation*, 741.

23)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1059-1060. Kyoung-Shik Kim, *God Will Judge Each One According to Works: Judgment according to Works in Early Judaism and the New Testament* (BZNW 178; Berlin: de Gruyter, 2010), 246.

3. 두 증인과 소돔 모티브 (계 11장)

이제 계시록에서 소돔 모티브를 가장 명확하게 사용하는 장면을 살펴보자. 소돔이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구절은 계시록 11:8이다. 두 증인이 자신들의 증거를 마쳤을 때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7절), 두 증인의 시체가 매장되지 않고 큰 성의 길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이들의 시체가 놓여 있는 큰 성의 이름이 두 가지로 덧붙여진다. 하나는 애굽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이다. 여기에 직접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설명이 큰 성의 이름을 부연한다.

이 큰 성의 정체가 무엇인가 논쟁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성을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라는 설명과 성전과 이방인에 대한 1-2절의 언급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본다.²⁴⁾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성을 바벨론과 일치시킨다. 계시록에서 ‘큰 성’ (ἡ πόλις ἡ μεγάλη)이라는 이름은 항상 바벨론 즉 로마제국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계 14:8, 16:19, 18:2).²⁵⁾ 결국 큰 성 바벨론은 크게 세 가지 호칭으로 불림을 알 수 있다. 큰 성인 바벨론은 예루살렘이고, 애굽이고, 마지막으로 소돔이다. 환언하면 바벨론은 주님을 죽인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이고, 애굽과 같은 도시이고 소돔과 같은 도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8절에 사용된 ‘영적으로 하면’ (πνευματικῶς)이라는 어구 때문이다. 이 단어의 뜻은 ‘영해하면’(allegorically)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이라는 의미이다.²⁶⁾ 바벨론을 애굽에 비유하는 것은 계시록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출애굽 모티브에 의해서 충분히 뒷받침된다.²⁷⁾ 또한 바벨론을 주께서 십자가에 죽임

24) Peerbolte, “Sodom, Egypt and the Two Witnesses of Revelation 11:8”, 80-81.
Grant R. Osborne, *Revelation*, 426. Osborne은 이 큰 성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면서도 동시에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적 호칭이라고 본다.

25)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591.

26) Osborne, *Revelation*, 427.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592.

27) 계시록의 나팔재앙, 대접 재앙이 출애굽 10재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양’(계 5:6)으로 묘사하는 대목이나, 구원받은

을 당한 곳 즉 예루살렘으로 비유하는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 즉 순교를 당하셨던 것 같이, 이제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순교할 장소이기 때문이다. 두 증인은 10절에 ‘두 선지자’ (οἱ δύο προφῆται)로 바뀌어 설명되고 있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루살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이들을 죽게까지 하는 장소로 여겨져 왔다.²⁸⁾ 이제 두 증인 즉 두 선지자로 상징되는 교회는 바벨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참고, 계 14:6). 그러나 복음 증거는 순탄치 않아 마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처럼 두 증인 곧 두 선지자도 핍박과 살해를 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예수를 닮아감’ (Imitatio Christi)이라는 주제가 예수의 죽음과 두 증인의 죽음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이 주제는 ‘증인’이라는 면에서도 발견된다. 계시록에서 예수는 충성된 ‘증인’ (1:5)으로 소개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교회도 두 ‘증인’으로 소개된다(11:3-4). 이런 예수와 교회의 일치성은 증인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당함이라는 측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도 순교를 당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순교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을 닮은 바벨론에 의해 그리스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11:7).

지금까지 살핀 대로 바벨론을 애굽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바벨론을 ‘소돔’으로 묘사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두 증인과 관련해 소돔 모티브가 사용되는 의도가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큰 성을 설명하면서 사용된 지명인 소돔과 애굽 그리고 주께서 죽으신 곳이 라는 어구는 하나의 헬라어 관사가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세 가지 지명은 각각의 지명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이라는 하나의 지명이 가진 영적인 특성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소돔이라는 지명은 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계 15:3)를 부르는 장면은 모두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이다.

28) 다른 신약성경에도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이 핍박받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다(참고, 마 23:37; 눅 13:34)

로 뒤에 애굽이라는 지명과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돔과 애굽이라는 두 지명이 큰 성 바벨론이 가진 하나의 특성을 두 가지 지명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비일(Beale)은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지명을 꺾박과 연관지어 해석한다.²⁹⁾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꺾박 받았던 장소이고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을 꺾박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꺾박이라는 주제로 바벨론과 애굽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소돔이라는 지명에 대해 비일(Beale)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멸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소돔이라고 부른다고 본다.³⁰⁾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 해야 할 장소였다. 따라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야 했던 것처럼 계시록의 원독자들도 바벨론의 꺾박과 미혹에 타협하지 말고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참고, 계 18:4). 또한 소돔이라는 상징적 지명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명칭으로 볼 수 있다.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사람들이 나와야 할 장소였다(창 19:12-14).

이러한 구약의 소돔 이야기를 배경으로 볼 때, 소돔이라는 상징적 지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큰 성 바벨론의 꺾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타협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 영역이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소돔의 멸망과 연관짓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소돔모티브는 멸망의 주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면의 주제도 있다. 다시 말해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 받은 도시이다. 따라서 소돔에 계속 머물러 있고 나오기를 거부하면 그 결과는 창세기 19:24, 28에 묘사된 대로 불과 유황과 연기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계시록에서 영별을 묘사하면서 불과 유황이라는 소돔 모티브를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바벨론은 멸망당한 소돔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므로,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는 소돔같은 바벨론에 멸망과 구원의 기회를 선포하면서 바벨론의 꺾박과 유혹에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와 권면이 소돔이라는 지명 속에 함

29)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591.

30)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591.

축되어 있다. 물론 계시록 11장에서 소돔이라는 지명이 분명하게 경고나 권면의 내용과 직접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시록의 순서를 따라 차근차근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계시록의 원래 수신자들은 앞서 논증했던 것 같이 소돔 모티브가 경고와 권면의 문맥에서 사용했음을 인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 계시록 18장에 이르면, 앞으로 논증하겠지만, 소돔 모티브에 근거한 권면인 바벨론으로 부터 나오라는 권면을 듣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계 18:4)

계시록 11장에서 바벨론을 가리켜 소돔이라는 상징적 지명을 사용해 계시록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바벨론은 소돔과 같은 불의한 도시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불과 유황으로 멸망 받을 도시라는 점이다. 그러나 구약 소돔 이야기가 심판에 대한 설명에 국한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구약 소돔 이야기(창 18-19)에서 소돔은 멸망을 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자(롯과 두 딸)가 있었듯이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서도 바벨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 계시록 11:13은 큰 지진으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칠천의 죽는 사람이 생기지만, 그 남은 자들(οἱ λοιποὶ)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한다. 결국 계시록 11장에 사용된 소돔 이미지는 심판과 멸망을 묘사하는 이미지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회개라는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두 증인은 마치 창세기 19장 소돔 이야기에서 자기 사위들에게 임박한 소돔성의 멸망을 피하라고 경고하는 롯의 역할을 하고 있어 보이기도 하다. 동시에 계시록 11장과 좀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유사성은 두 천사(사람)의 역할과 두 증인의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³¹⁾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하는 선지자의 역할은 창세기 19장에서 두 천사 혹은 두 사람이 소돔의 멸망을 예고하는 역할과 매우 흡사하다. 두 천사의 역할이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고 롯과 또 롯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소돔 성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성 밖으로 나가라고 경고하는 역할(창 9:12-

31) 존 H. 세일해머,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서울: 새순, 1994), 321. 두 천사는 두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창 19:10,12,16).

15)을 했다.³²⁾ 두 증인도 같은 역할을 계시록 11장에서 하고 있다. 계시록 11장의 증인의 수와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천사(사람)의 수가 모두 ‘둘’(δύο 창 19:1, 계 11:3)이라는 유사성은 두 본문이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결 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4. 바벨론 멸망과 소돔 모티브 (계 18장)

계시록에서 소돔 모티브를 사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은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18장이다. 우선 문맥을 살펴보자. 계시록 18:1-3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그 이유를 큰 음성으로 선포한다(1-3). 그리고 4절 이하에서는 하늘로 부터 다른 음성이 울려 퍼지는데 그 음성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권면(4절)과 관련이 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내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명령으로 표현되어 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가지 이유가 ἵνα를 통해 두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둘째로 바벨론이 받게 될 재앙을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소돔 모티브는 계시록 18:4의 권면의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부터 나오라는 권면은 일반적으로 예레미야서 50:8; 51:45, 50과 이사야 48:20; 52:11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³³⁾ 필자가 보기에 지금까지 제시된 다른 구약본문보다도 예레미야서 51:6가 계시록 18:4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흥미롭게도 예레미야서 칠십인역에는 예레미야서 51:45에 해당하는 구절이 존재하지 않는다.

렘 51:45

32) 세일해머,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321.

33) Mounce, *Revelation*, 324. Osborne, *Revelation*, 638. David E. Aune, *Revelation 17-22* (WBC 52c; Nashville: Thomas Nelson, 1998), 990. Aune는 주로 구약 선지서들에 나오는 ‘~로 부터 나오라’는 명령 형식을 “summons to flight” (Aufforderung zur Flucht)라고 부른다(p. 977).

45 וְיָצֵא מִן־הַבְּרִית עַמִּי וּמִלְּבָבִי שִׂי אֶת־נַפְשִׁי מִן־הַחַיִּים אֶת־יְהוָה:

계 18:4 Καὶ ἤκουσα ἄλλην φωνὴ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λέγουσαν·
ἐξέλθατε ὁ λαός μου ἐξ αὐτῆς ἵνα μὴ συγκοινωνήσητε ταῖς
ἁμαρτίαις αὐτῆς, καὶ ἐκ τῶν πληγῶν αὐτῆς ἵνα μὴ λάβητε,

두 본문이 보여주듯이 우선 ‘내 백성아’ (עַמִּי / ὁ λαός μου)라는 호격과
‘거기에서 나오라’ (וְיָצֵא מִן־הַבְּרִית / ἐξέλθατε ... ἐξ αὐτῆς)는 명령법이 두 구
절에 다 사용되고 있다. 문맥적으로 볼 때도 예레미야서 51장과 계시록 18장
은 둘 다 바벨론의 멸망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예레미야 51:45와 계
시록 18:4 사이의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계시록 18:4에 소돔모
티브가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돔 모티브에 나오는 소돔으
로부터 나오라는 권면(창 19:12-15)이 계시록 18:4의 권면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면이 등장하는 창세기 19:14-15와 계시록 18:4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창 19:14-15 ¹⁴ἐξῆλθεν δὲ Λωτ καὶ ἐλάλησεν πρὸς τοὺς
γαμβροὺς αὐτοῦ τοὺς εἰληφότας τὰς θυγατέρας αὐτοῦ καὶ εἶπεν
ἀνάστητε καὶ ἐξέλθατε ἐκ τοῦ τόπου τούτου ὅτι ἐκτρίβει κύριος
τὴν πόλιν ἔδοξεν δὲ γελοιάζειν ἐναντίον τῶν γαμβρῶν αὐτοῦ
¹⁵ἡνίκα δὲ ὄρθρος ἐγένετο ἐπεσπούδαζον οἱ ἄγγελοι τὸν Λωτ λέγοντες
ἀναστὰς λαβὲ τὴν γυναῖκά σου καὶ τὰς δύο θυγατέρας σου
ὅς ἔχεις καὶ ἔξελθε ἵνα μὴ συναπόλῃ ταῖς ἀνομίαις τῆς πόλεως

계 18:4-5 ⁴Καὶ ἤκουσα ἄλλην φωνὴν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λέγουσαν· ἐξέλθατε ὁ λαός μου ἐξ αὐτῆς ἵνα μὴ συγκοινωνήσητε
ταῖς ἁμαρτίαις αὐτῆς, καὶ ἐκ τῶν πληγῶν αὐτῆς ἵνα μὴ λάβητε,
⁵ὅτι ἐκολλήθησαν αὐτῆς αἱ ἁμαρτίαι ἄχρι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ὶ
ἐμνημόνευσεν ὁ θεὸς τὰ ἀδικήματα αὐτῆς.

창세기 19장 14-15에 나오는 ‘~로부터 나오라’ 는 명령과 계시록 18장 4-

5에 나오는 ‘~로 부터 나오라’ 는 명령은 헬라어로 같은 형태의 동사 명령형 (ἐξέλθατε)과 전치사 ἐκ가 결합된 형태이다. 동시에 불의한 도시로 부터 나와야 할 목적을 나타내는 ἵνα μὴ라는 어구가 두 본문에 다 같이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접속사 ἵνα 다음에 사용되는 동사도 동일한 접두어 συν_ 으로 시작되는 동사(συναπόλη / συγκοινωνήσητε)가 사용되고 있다는 독특한 점은 창세기 19:14-15의 권면과 계시록 18:4-5의 권면 사이의 긴밀한 연관 관계를 뒷받침해 준다. 하지만,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예레미야 51장과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멸망에 쓰이는 권면 사이에는 무시하기에 너무 밀접한 문맥적 유사성과 문자적 유사성이 또한 존재하고 있다. 먼저 문맥적으로 볼 때 두 본문 다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 또한 ‘내 백성아’ 라는 호격과 ‘~로 부터 나오라’ 는 명령이라는 단어상의 유사성은 너무나 뚜렷하다. 따라서 계시록 18:4에 예레미야 51:45가 사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계시록 18:4의 권면은 2개의 구약본문인 창세기 19:22-24와 예레미야서 51:45를 각각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소돔 모티브의 존재를 계시록을 주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는 비일(G.K. Beale)에 따르면 계시록 18:4의 중요한 구약적 배경은 예레미야서 51:6과 이사야 52:11이다. 그러나 그는 창세기 19장의 소돔 이야기에 나오는 권면도 계시록 18:4의 배경일 것이라고 추리하지만, 소돔 모티브는 단지 여러 구약적 배경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³⁴⁾ 그러나, 논자가 보기에 창세기 18-19장의 소돔 모티브가 예레미야서 51장과 계시록 18장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서 51장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묘사가 사실 소돔 모티브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돔 모티브는 계시록 18장의 권면에서도 중요한 구약적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예레미야 51장을 포함해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는 더 넓은 문맥인 예레미야 50-51장이 소돔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예레미야 50-51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룬다는 점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는 하나의

34) Beale, *Revelation*, 897-899.

단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소돔 모티브가 사용되어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돔’이라는 지명이 예레미야 50-51장의 단락에 직접 등장한다.(렘 50:40). 이 소돔이라는 지명을 사용하면서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소돔성의 멸망과 같다고 이야기한다는 점이 소돔모티브가 사용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둘째로, 바벨론의 멸망을 불 심판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바벨론 멸망을 설명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소돔 모티브임을 암시한다(렘 50:32; 51:30,32,58).

물론 불을 수단으로 한 심판은 구약에 흔하게 사용되는 심판의 이미지임을 부인할 수 없다.³⁵⁾ 하지만, 소돔이라는 지명과 함께 결합되어 나타나는 불 심판은 바벨론을 설명하며 사용하는 불 심판의 이미지가 구약에 나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심판의 이미지가 아니라, 소돔의 모티브와 관련해 소돔성의 멸망을 묘사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이미지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소돔 모티브가 예레미야서 50-51장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흔적은 악한 도시의 불의함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심판의 이유를 묘사하는 대목이다. 소돔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소돔과 그 주위의 성을 멸하는 이유가 이들의 불의가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했기 때문이다(창 18:20; 19:13). 동일한 심판의 이유가 예레미야 51:9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근거로 제시된다(렘 51:9).

따라서 이러한 점들은 예레미야 51장에 사용된 바벨론 멸망을 묘사하는데 소돔 모티브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계시록 18:4의 권면도 단순히 예레미야서 51:45에 사용된 바벨론 멸망과 이를 두고 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권면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교하게 창세기 18-19장의 소돔 모티브와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계시록 18:4의 ‘내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권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빠져 나오라는 창세기 19:12-15에 기록된 권면이 중요한 구약적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계시록 18:5에 나오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로 제시되는 바벨론의 불의가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했

35) Fields, *Sodom and Gomorrah*, 134-142. 특히 136.

다는 내용이 이미 창세기에서 소돔 이야기에 등장하는데 이 내용이 소돔이 멸망당하는 이유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건데, 계시록 18:5가 소돔 모티브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19:13을 암시한다고까지 볼 수 있다.³⁶⁾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부터 나오라는 권면과 권면의 이유가 제시되는 계시록 18:4-5은 소돔 모티브를 다루는 창세기 19:12-15를 두 번에 걸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는 계시록 18:4에서 불의한 도시로 부터 나오라는 권면의 내용으로 창세기 19:14-15를 암시(allusion)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악한 도시의 불의가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했다는 심판의 이유를 제시하는 계시록 18:5이 창세기 19:13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시록 18장과 소돔 모티브(창 19장)와의 상호관련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도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권면을 창세기 소돔의 멸망 이야기와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즉 불의한 소돔성에 거주하면서 소돔의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성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들은 불과 유황과 연기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시록 18:4의 권면은 소돔 모티브를 사용해 바벨론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이러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ὁ λαός μου)에게 불과 유황의 심판(계 14:10, 19:20, 20:10)을 피하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는 권면을 하고 있다.** 바벨론은 소돔이기 때문이다(참고, 계 11:8). 롯의 사위들은 소돔의 심판에 관한 경고를 듣고도 소돔에서 빠져나오기를 거부하여 결국 불과 유황과 연기의 심판을 경험한다(창 19:4). 그리고 롯의 아내도 경고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소돔을 뒤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다(창 19:26). 다시 말해 계시록 18:4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권면을 창세기 18-19장에 그려진 소돔 모티브를 통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에서 사용되는 소돔 모티브는 단순히 불과 유황의 심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핍박과 유혹에서 타협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라는 권면의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계시록의 다른 어떤 구절

36)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899.

보다도 계시록 18:4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³⁷⁾

5. 결론

계시록에서 소돔 모티브는 소돔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계시록 11장에서만 사용되고 있지 않고, 불과 유황(연기)이라는 어구를 통해서도 표출되고 있다. 또한 계시록 18:4에서 바벨론으로 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야 한다는 명령에도 암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창세기 18-19장에서 나온 소돔 모티브는 계시록에서 여섯째 나팔재앙에서 마병대와 말과 관련된 재앙(계 9장), 두 증인이 죽는 장소(계 11장),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는 장면(계 18장), 사탄의 삼위일체(사탄, 짐승, 거짓선지자)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던져지는 장소(계 19-20)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교한 소돔 모티브의 사용 문맥과 위치를 통해 볼 때, 계시록에서 사용되는 소돔 모티브는 단순히 악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설명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내 백성’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묘사된 영원한 심판을 경고하여 이들로 타협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권면의 의도를 지닌 모티브이다. 계시록은 창세기의 소돔 이야기를 근거해 핏박과 미혹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돔인 바벨론(계 11)으로부터 나오라(계 18)는 권면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바벨론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과거 소돔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도시이기 때문이다.

▶ 접수일: 2013년 08월 20일 심사일: 09월 04일 게재확정일: 09월 10일

37)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소돔 모티브도 경고와 권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참고, 벧후 2:6; 유 7). 베드로후서나 유다서 둘 다 소돔 이야기는 ‘본’이나 ‘거울’이 된다고 밝힌다.

[Abstract]

Sodom Motif in the Book of Revelation

Kyoung-Shik Kim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is study looks into the use of Sodom motif in Revelation. Sodom motif in Revelation has not been examined sufficiently because there is only one reference to Sodom Rev 11:8. Accordingly many studies had paid little attention to Sodom motif throughout John's apocalypse although they mention it extremely briefly. This article considers not only an explicit reference to the geographical name, Sodom, but also implicit uses of Sodom motif in order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Revelation.

Firstly, it is argued that the image of fire, sulphur and smoke is closely related to Sodom motif. The image is used in Rev 9:17-18 which depicts the sixth trumpet. The Sodom motif of fire, sulphur and smoke is employed to call people into repentance as our discussion of Rev 9:20-21 shows. The image of fire, sulphur and smoke which came from Sodom narrative in Gen 18-19 is also utilized to describe the eternal destruction of Satanic trinity, that is, Satan,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Rev 19:20, 20:10). In doing so, the motif is used to warn the believers not to compromise with Satanic world system(Rev 14:10-11, Rev 21:8).

Secondly, Sodom motif is also present in Rev 11 which describes the activity and death of two witnesses. The great city in which the two witnesses are killed is called spiritually Sodom as well as Egypt and Jerusalem. It is argued here that the reason why the city is designated as Sodom is that

Sodom is the place and sphere from which God's people should depart. Of course the geographical name Sodom is utilized to describe the divine punishment of the city as Sodom narrative in Genesis clearly evokes. However, Sodom motif is also employed to evoke two angels or messengers who warn of the destruction of Sodom in Sodom narrative.

Lastly, Rev 18 uses Sodom motif in the context of exhortation for God's people to come out of the great city Babylon. This study maintains that Sodom motif stands behind the exhortation of Rev 18:4. God's people who are exposed to spiritual compromise with Babylon should come out of the city because Babylon is like the ancient city of Sodom which was doomed to God's judgment.

In conclusion, Sodom motif is used throughout Revelation. Sodom motif is not limited to the explicit designation of Sodom in Rev 11 but also other allusions: the image of fire, sulphur and smoke, and evocation of the two angels' exhortation to depart from the city. Sodom motif is used two ways in Revelation. First, the motif is employed to depict eternal punishment. Second,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the motif is also significantly used to warn and exhort God's people of the eternal judgment, while calling the compromising believers into repentance.

주제어:

요한계시록의 소돔 모티브, 불과 유황과 연기, 회개를 위한 경고

Sodom motif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image of fire, sulphur and smoke, warning for repentance.